LS증권

The Economy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투자코멘트 | 2026. 3. 2

이란 사태 점검: Epic Fury와 Lion's Roar 누구를 위한 분노와 포효인가?

경제/환율 | **최광혁** | whydele@ls-sec.co.kr

아직 명확한 목적 파악이 어려운 공격

트럼프 대통령은 Epic Fury 작전과 관련된 발표에서 몇가지 이란 공격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란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제거와 미사일 산업 파괴, 해군 전멸 등을 언급했으며 결과적인 목표는 현 이란 정권의 종결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대선 당시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특히 중동에서 역대 대통령이 '끝없는 전쟁'을 벌여온 습관을 비난하고 2003년 이라크 침공을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공격에 대해서는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연구소의 마이클 맥폴이 언급했듯이 이라크 전쟁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시도했으며,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반면 이번 공격은 아무런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미국 하원에서는 민주당로 칸나 의원과 공화당 토머스 매시 의원이 의회의 승인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상원에서도 민주당 팀 케인 의원과 공화당 랜드 폴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실제로 가디언지는 트럼프의 이번 공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법이나 국제적 규범을 무시하고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GMF의 크리스티나 카우쉬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 51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한다. 베네수엘라 공격이 어쩌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이란에 대한 이번 공격까지 미국이 국제사회의 질서를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는 인상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란 국민이 상당기간 고통을 겪어 왔고, 이란 정권이 47년 전 혁명 이후 중동 사회에 혹은 글로벌 전체에 지정학적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이번 공격이 가지는 미국의 태도 변화와 앞으로 세계가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인지할 필요는 있다.

변화의 본질은 국제질서 무시와 적자생존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는 결국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국제법과 상관없이 실행한다는 것이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올지도 아직은 불분명하지만 미국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공격이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결정한 것은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행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의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대부분의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인 관습, 법, 시선은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 의회와 사법부에서 이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겠지만 상호관세, 이란 공격에서 알 수 있듯이 견제는 선제적인 방어가 아닌 행동 이후의 되돌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미국의 행동으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확대와 완화의 과정을 겪을 수 밖에 없다.

2024년이나 2025년과 같이 시장이 AI등의 성장에 대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러한 변동성이 매수를 위한 조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장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시점에서의 변동성 확대는 시장에 예상치 못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향후 영향은?

현재 상황 만으로 시나리오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단기적인 이벤트로 현재의 상황이 종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pic Fury 작전 이전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의 핵심에는 지형과 장기전 문제, 헤즈볼라, 후티 등의 비대칭 보복,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경제적 문제 등 뒷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고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있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됐고, 반대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던 이유들은 모두 현재의 시장에 반영될 위험 요인으로 변화했다.

경제적 문제

유가 상승은 물가에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헤즈볼라, 후티, 이라크와 시리아 민병대가 미군 주둔지역 타격을 시작한다면 유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터키를 시작으로 쿠르드 반군도 기회를 보기 시작하면서 중동의 정세 자체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속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해협 봉쇄를 위한 시도는 지속될 것이고 당장 글로벌 운송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다는 선택지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도 글로벌 불확실성과 경제적 복잡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환율문제

일반적으로 글로벌 위기,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는 달러화의 강세를 가져온다. 원달러환율이 1,500원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러한 전망에 기인한다. 다만 고민스러운 부분은 2025년 이후 강해지기 시작한 달러 프로운 현상이다. 더 이상 달러는 모든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통화가 아니다. 더욱이 이번 공격이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에 대한 테러, 미국의 군사비 지출 등이 달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3월 1일 장 시작 이후 달러보다 스위스 프랑과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으로서 먼저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원달러환율 역시 동일한 논리로 상승 흐름이 제한될 수 있다. 유가의 상승과 수출의 제한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만큼 원화의 약세로 연결된다. 다만 타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에서 달러의 강세로 원달러환율이 강하게 상승했던 것과 달리 원화의 약세 만이 환율에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자료를 작성하는 현재 원달러 NDF환율은 1,450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금융시장 문제

앞서 언급한대로 주식시장에서 고민해야할 사항이 늘어난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변동성 확대와 조정으로 이어진다. 현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사태 해소를 기대하기는 조금 이르다.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의 강세는 달러 강세와도 연결되어 있지만 시장은 점차 달러와 미국채의 안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과거 추세와 같은 강세를 전망하지는 않는다. 향후의 변화는 1~2일 후로 예고된 지도자 선출에 달려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종교 지도자가 폭사 당한 이후 개혁 온건파의 선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표1 이슬람 차기 지도자 후보군

	모즈타바 하메네이 -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 - 강경 보수파 -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산하 민병대 바시즈의 지지 - 세습 여론 및 부패한 기업가라는 이미지
	하산 호메이니 - 혁명의 아버지, 루홀라 호메이니의 손자 - 개혁파, 온건파 - 개혁파와 보수파 모두와 교류 - 이란 최고지도부가 개혁파나 온건파를 배척하려는 경향
	알리레자 아라피 - 전문가회의 제 2 부의장, 하메네이의 측근 - 신학적/관료적 역량 보유 - 정치적 성향 및 안보기관과의 연재는 부족
	모하메드 메흐디 미르바게리 - 보수성직자 대표, 전문가위회의 의원 - 강경 보수파 성직자 - “신과 가까워지기 위해선 세계인구의 절반이 죽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 이슬람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관, 현 국회의장 - 보수 강경파 - 군인출신으로 성직자 정체성 부족
	알리 아르다시르 라리자니 - 국회의장(2008 년~2020 년), 이란혁명수비대 지휘관 역임 - 실용적 보수주의 - 아버지와 동생 모두 고위 성직자 - 동생 사디크 라리자니는 전 대법원장 출신으로 유력 후보 중 하나

자료: 언론보도,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최광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